

# 드론 2025대, 고흥 녹동항 밤하늘 수놓는다

12일 오후 8시 드론쇼...10분간 고흥 3대 발전전략 연출  
공연·버스킹 부대행사...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정기공연

2000여대의 드론이 고흥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고흥의 대표적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12일 오후 8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개막한다.  
이번 개막쇼에는 ‘2025년’을 기념하기 위해 총 2025대의 드론이 뜰 예정이며, 이는 전남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쇼이다.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드론쇼는 지난해까지 2년간 총 52회 공연했으며, 관람객은 총 42만여명으로 35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이같은 호응에 힘입어 첫째 500대로 시작된 드론쇼는 지난해 700대로 늘었으며, 이번 개막식에는 무려 2000여대가 동원하게 됐다.  
특히 이번 쇼는 전국의 산불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돼 열린다. 드론쇼 이전 준비된 불꽃쇼는 취소됐으며, 대신 드론 200대의 불꽃쇼가 펼쳐진다.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드론쇼는 10분간 고흥의 3대 발전 전략(스마트팜, 우주항공, 드론택시)과 교통인프라(도로확충) 등을 주제로 한 7가지 형태로 연출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부터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녹동항 바다정원에서의 정기공연 외에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고흥군청 앞 군민광장에서도 공연을 개최하게 된다.  
이날 개막식은 8시부터 버스킹 1부 공연으로 시작해, 개막식, 드론쇼, 버스킹 2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을 대비해 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쇼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고흥경찰서와 모범안전자회의 협조를 받아 교통을 통제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힘을 애정이다.  
또 드론쇼가 펼쳐지는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은 맛있는 먹거리로도 유명하다. 대표 음식인 장어구이와 장어탕을 비롯해 계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포장마차와 가벼운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공연인 고흥군수는 “녹동항 드론쇼는 고흥군의 관광 히트 상품이다. 더욱 특별한 구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올해부터는 고흥읍에서도 드론쇼를 개최해 군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년 첫 ‘녹동항 드론쇼’가 12일 오후 8시 고흥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된 드론쇼.

이지(<http://nokdongdrone.co.kr>) 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iu@kwangju.co.kr

## 보성 ‘울포해양복합센터’ 해양레저 랜드마크로 재탄생

484억원 투입 2026년 완공  
서핑·다이빙 시설 대폭 확장

보성군이 ‘울포해양복합센터’ 설계를 보완하며 대한민국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혁신적인 공간 구성과 효율적 설계를 통해 사계절 내내 활기를 띠는 해양레저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보성군 회천면 울포관광지 내에 총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대규모 해양레저시설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애초 설계에 공간 활용 극대화와 기후 변화 대응 구조 보완을 추가해,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설계 변경으로 총면적 9046.6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는 유지되지만, 최고층이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늘어나 용적률이 확대되고 공간 배치 효율도 개선했다.  
특히 서핑과 다이빙 중심의 해양스포츠 시설을 강화하고, MZ세대를 겨냥한 감각적인 휴게 및 체험 공간도 대폭 확충됐다.  
설계 변경의 핵심은 서핑과 다이빙 시설의 대폭 확장이다. 기존 1층 야외 풀장을 없애고, 실내 서핑장을 3개 라인으로 확대해 폭도 12m까지 넓혔으며, 이를 통해 동시 수용 인원을 크게 늘렸다.  
또한 지하층에 있던 기계·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해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상승 및 해일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다.  
서핑 관람객을 위한 라운지 공간도 개선했다. 기존 2층의 실내 물놀이장은 3층으로 변경되며,



울포해양복합센터 조감도.

“다목적 휴게 카페 공간”으로 조성돼 서핑과 다이빙을 관람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4층에는 수중 스튜디오와 북카페가 마련돼, 해양레저와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입체적 체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단순한 해양레저시설을 넘어, 사계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은 울포프론트나드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야외광장을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장과 불명 공간 등 이색 콘텐츠를 추가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가장 주목할 시설은 5층에 들어설 다이빙

풀이다. 수심 41.5m(34m×13m)에 달하는 이 풀은 국내에서 가장 깊고,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문 다이빙 전용 공간으로 설계됐다.  
또한 다이빙 라운지와 연계된 전문 교육·체험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며, 장비 보관실, 교육장, 잠영 공간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돼 국내외 다이빙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대한민국 남해안 해양레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간 활용도와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찾는 명소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벼·사과 하계작물 변경 신고하세요”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 6월까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이하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용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올해부터 정기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 지급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순천경찰 대선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순천경찰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9일 설치했다.  
〈사진〉  
이날 순천경찰은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및 수사상황실 전담 요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헌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순천경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반 선거 관여·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직접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원 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업무 지지를 잘 숙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순천시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요리활동’ 진행

11월까지...등록시설 162곳 대상

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등록시설 162개소의 어린이 5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요리활동’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요리 활동’은 참여시설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센터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0~2세는 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 고소도식 만들기, 3~5세는 토마토에 여러 가지 채소와 닭가슴살, 치즈를 차곡차곡 넣어 만든 아파트 샌드위치 만들기 활동으로 이뤄진다.

센터 관계자는 “요리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조리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와 대상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061-751-0661)로 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진월면·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망덕포구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위해 칠면초·함초 등을 파종해 놓은 갯벌에 민물을 급수하고 있다.

## 광양시 진월면, 가뭄 고사 위기 염생식물 군락지 18000 l 급수

칠면초·해홍·함초 발아 도와

광양시 진월면이 지난 6일 섬진강 망덕포구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위해 염생식물 칠면초·해홍·함초를 파종해 놓은 갯벌에 15톤(약 18000 l)의 민물을 급수했다. 〈사진〉  
최근 가뭄으로 인해 염생식물의 발아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식물의 생명력 유지를 위한 급수 작업이 시급한 상황에서 진월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소속 10여 명은 이날 갯

벌에 들어가 호스를 이용해 물을 공급하며 염생식물의 성장을 도왔다.  
칠면초가 갯벌 곳곳에서 약 1~3cm 정도의 싹을 틔우고 있어, 이번 급수 작업이 염생식물 발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월면은 앞으로 도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기춘 진월면 이장협의회장은 “과거에는 이곳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했지만, 염분이 많은 바닷물에 의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오늘 우리의 노력이 젊은 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남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순용 진월면장은 “이곳의 염생식물이 성장해서 군락을 이루면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훌륭한 학습장이 될 것”이라며,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특산물 개발로 이어져 지역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